

어디에 서 있는가?

(삼상22:1-10)

서론: 오늘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놈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거짓으로 제사장을 속여 떡과 칼을 얻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에 다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었고, 정체를 들키자 미친 채하고 침까지 흘리며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아돌람 굴로 도망한 다윗에게 가족들이 오게 되고,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갈급한 자 4백 명이 모입니다. 교회도 이같이 배경이 없고, 지식이 없는 갈릴리 시간표를 가진 자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급한 자 4백 명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시고,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일꾼들로 쓰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다윗을 인턴십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불신앙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에 모든 걸음을 축복의 여정으로 누려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시작 - 왜 이런 사람이 모였을까?

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언약 때문에 반드시 승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 나의 언약함과 상관없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기에 날마다 오직 복음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빌1:6).

나.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마9:12, 고전1:27).

-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내 기준과 내 체험이 아닌 복음으로 누구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에 지금 안 되더라도, 성령충만함이 덮여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다. 나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편에 있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날마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2. 생명이 먼저이다

가. 제도와 법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 생명과 복음을 가진 자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결론: 갈급한 자, 환란 당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변하여, 다윗 왕국의 공신이 되고 충성스러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쓰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사람을 수용,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